

설 감사예배

이제 당신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당신을 생각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는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분이 앞장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자는 형통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맡길 때 지금까지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찬 송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569장) 다 같이

1. 선한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선한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2.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3.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사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시다 선한 목사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시다
4.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주 기도 다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2동 338-146
☎ 374-6161~3, 374-6168(FAX) www.sjch.kr

예 배 순 서

예배의 부름 고후 5:17 인 도 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찬 송 시온의 영광이 (550장) 다 같이

1.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둠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쳐오네
2.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3.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산과 저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4.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기 도 공동기도(혹은 가족 중에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민족의 큰 명절인 설을 통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시작은 우리의 마음과 생
각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
하실 때만 가능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참된 공동체가 되게 하
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
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과 행동
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
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
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독 신 31:7-8 인 도 자

7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
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 그리하면 여호와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
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설 교 『약속의 땅을 향해』 인 도 자

오늘은 정월명절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기나긴 여행을 하려면 여행
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돈도 찾고, 물건도 챙기고, 무엇보다 마음으로
준비하듯이, 이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로운 한 해의 여행을 위
한 출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를 대신하여 백
성을 이끌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임명하고, 여호수아에게 다
음의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여행의 목적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불분명한 여행은 고통스럽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가야할
목적지가 약속의 땅 가나안임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지나간 한 해를 살
아 돌아볼 때 당신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만족할 만큼 성공적인 삶을 살
아 왔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목표를 분명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한 목표를 설
정하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둘째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비교할 때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받았던
훈련과 비교할 때 여호수아는 지도자라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스스
로 생각할 때 왜소함을 느낄 수 있고, 백성들에게 무시당할 수도 있습
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
었던 것은 인간적인 조건들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여호와가 함께하신다는 배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여호와를 믿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출발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삶의 비전을 향해 출발
하려는데 두려운 마음이 듭니까? 인간적인 이유들 때문에 아예 겁을
집어먹고 있지는 않습니까?